

드라마 대본 쓴 판사·영화 주연 맡은 버스기사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판사 집필 ‘튼튼이의...’ 기사 고성완씨 주연 ‘버닝’엔 MBC 최승호 사장 조연



드라마 대본을 쓰는 문유석 판사(왼쪽)와 버스기사인 배우 고성완.

현직 판사가 드라마 극본을 쓰고 서울 시내 버스기사가 영화 주연으로 나선다. 방송사 사장은 영화에 조연으로 참여해 뜻하지 않게 칸 국제영화제 무대에 데뷔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최근 드라마와 영화 현장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일들이다.

방송 중인 고아라·김명수·성동일 주연의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는 현직 부장판사가 드라마 대본을 쓰는 ‘작가’로 나선 작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유석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 신문 칼럼 연재를 통해 이미 필력을 인정받은 문 판사는 2016년 풍부한 재판부 경험을 토대로 펄넌 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원작으

로 한 이번 드라마의 대본까지 맡았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의사 출신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친 드라마 작가가 등장하긴 했지만, 현직 판사가 대본을 직접 집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미스 함무라비’는 각기 다른 개성과 처지에 놓인 세 판사가 주인공이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약한 법원을 꿈꾸는 초임 판사, 원리원칙을 따르는 엘리트 판사, 노련한 현실주의자인 부장

판사가 벌이는 법정 드라마다. 누구보다 법원과 판사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현직 판사가 실전 경험을 통해 구성하는 만큼 현실적인 인물과 이야기로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인다.

21일 개봉하는 영화 ‘튼튼이의 모험’은 현실감 짙게 느껴지는 주연배우들 덕에 웃음과 ‘짠한’ 감동이 배가 되는 작품이다. 2000여만 원에 불과한 제작비 탓에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 배우 캐스팅에서도 ‘짠내 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현직 서울시내 7211번 버스기사인 고성완 씨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다. 연출을 맡은 고봉수 감독의 삼촌이기도 하다.

고성완은 영화에서 존재 위기의 고교 레슬링부 코치 역으로 활약한다. 레슬링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버스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다, 제자의 설득에 다시 코치로 돌아와 훈련을 이끌면서 대회 출전까지 성사시키는 캐릭터이다. 오

랜 기간 연극배우로 활동했다고 해도 믿겨질 만큼 노련한 연기력과 순발력으로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실제 버스기사인 까닭에 영화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연기는 수월하게 소화했다는 고성완은 “모든 연기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보면 된다”며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게 맞나 궁금해 하면서 했다”고 말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도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MBC 최승호 사장이다. 주인공 유아인의 아버지로 출연하는 그는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는 기성세대의 분노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해 결코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장 취임 전 ‘버닝’ 출연을 결정, 촬영을 마친 최승호 사장은 연출자인 이창동 감독과 경북대 동문으로 오랜 기간 교류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해시태그 킷



상큼한 미소천사 송하윤

연기자 송하윤이 상큼한 매력을 뽐내었다. 송하윤은 “기쁨기쁨”이라는 글과 함께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눈으로는 윙크를 하고 있다. 송하윤의 상큼함은 그의 뒤로 펼쳐진 초록빛 나무들과 햇살 덕에 더욱 빛난다. 사진을 본 팬들은 “보기만 해도 절로 힐링된다” “매력적인 웃음”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통아 #송하윤 #귀요미 #상크미#뽀뽀

백슬미의 니혼테레비

- '오사카 순환선' 후 '후쿠오카 연애백서'

일본의 독특한 지방들이 배경 실존 장소·지역민들 사연 공감

일본에는 출연자보다 ‘배경’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많다. 이야기 무대를 도쿄가 아닌 지방으로 확대해, 더 다양한 에피소드와 새로운 배경을 시청자에게 소개한다. 철도산업이 발달된 점을 활용해 여행의 재미도 맛보게 한다.

관서지역의 가장 큰 방송사인 간사이 방송국은 2016년부터 ‘오사카 순환선’이라는 오피니언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다. 드라마는 실제 운영중인 오사카 순환선의 총 19개 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점, 건물 등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는다. PPL(갑장광고)을 의식해 세트는 구성하는 일은 없다. 제작진은 주민들의 협조로 속삭이를 해결하며 촬영을 무난하게 진행하고, 그 ‘답례’로 홈페이지에 각 회 배경이 된 역과 드라마에 등장한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해당 철도사와 연계해 시청자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큐슈 지방의 KBC는 ‘후쿠오카 연애백서’라는 드라마를 매년 방송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1편씩 제작하며, 3월 13번째 이야기 ‘너의 세계의 건너’ 편이 방송됐다. 이 시리즈는 후쿠오카 지역 시청자가 보낸 사연 가운데 채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든 장면을 후쿠오카에서 촬영한다. 실제 이야기를 실존 장소에서 촬영해 이야기의 사실성과 공감도를 높인다.

NHK는 4월 ‘교토인의 은밀하고 즐거운 블루 수업중’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했다. 교토의 정월사, 도에가, 요리사 등 장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가부키와 인연이 깊은 이시카와현 고마쓰시를 무대로 한 드라마도 10월 방송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우리나라엔 ‘지역’을 주인공으로 앞세운 드라마가 얼마나 될까.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bsm@donga.com

빌보드 핫200 1위·핫100 10위·166만장



방탄소년단이 10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새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의 3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음반판매량 166만 장, 지상파 및 케이블채널 음악 순위프로그램 1위 싸움이 등 화려한 성과를 남겼다. [김진환 기자 kwangsin00@donga.com](#)

엄청난 기록들 쏟아낸 방탄소년단 3주간 활동 마무리 월드투어 준비

그룹 방탄소년단이 ‘에메이징’한 성과를 남기고 10일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3집 ‘러브 유어셀프-전 티어’ 음반활동을 마무리했다. 3주라는 비교적 짧은 국내 활동 기간이었지만 100년의 한국 가요사를 다시 쓰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했던 이들이기에 기록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 24일 국내 컴백과 동시에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지난 3주간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엠넷 ‘엠 카운트다운’ 등 지상파 및 케이블채널의 음악 순위프로그램 1위를 싹쓸이하며 무려 12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와 해외의 인기 차이가 큰 그룹’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 국내 음악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는 발매 2주 만에 판매량 166만 장을 넘어섰다. 가온차트가 발표한 5월 음반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3집은 166만 4041장이 판매됐다. 이는 가온차트가 지금까지 집계한 수치 가운데 가장 높은 월간판매량이다.

가온차트 측은 10일 “단일앨범으로는 2000년 9월 조성모 3집이 170만5127장(한국음반산업협회 집계) 팔렸고, 17년 8개월 만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가온차트 측은 3집 총 판매량이 200만 장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작 ‘러브 유어셀프 승-하’의 타이틀곡 ‘DNA’ 뮤직비디오는 9일 오후 7시25분경 유튜브 조회수 4억 건을 돌파했다. 이는 한국 그룹 사상 최초로 최단 기간 4억 조회수 돌파 기록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빌보드200) 정상을 차지했

고, 핫100에서도 10위에 오르며 케이팝 가수로서 최고 성적을 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것이다.

국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방탄소년단은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 8월 25~26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북미와 유럽 10개 도시에서 펼치는 월드투어는 일찌감치 28만석 전석이 매진됐다.

월드투어 전까지는 이미 결정된 팬미팅과 광고 촬영 등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월드투어 준비에 돌입한다. 틈틈이 다 음 앨범 곡 작업과 녹음 등을 진행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정해인, 차세대 한류스타 예감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스타덤 방콕 이어 홍콩 마닐라 대만 팬미팅



정해인

연기자 정해인이 차세대 한류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정해인은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팬까지 사로잡으며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정해인을 향한 해외의 반응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해인은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종영 직후인 5월 말 일본으로 넘어가 현지 매체 인터뷰를 하는 등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드라마가 7월26일부터 일본 CS채널 위성극장에서 방송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해인이 해외에서 여는 공식적인 팬미팅은 이달 2일 치러진 태국 방콕 행사를 시작으로 홍콩, 필리핀 마닐라, 대만으로 이어진다. 정해인과 이들 지역 팬들

과의 만남은 대략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해인은 각 지역의 색깔과 팬들의 성향을 고려해 팬미팅 준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팬미팅 일정은 현재 조율중이며, 지난해 출연한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현지 위성극장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미 차세대 한류스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정해인의 팬미팅은 국내에서 마무리된다. 7월2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스마일 팬미팅 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팬미팅을 연다.

정해인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월 한 달간의 해외 활동에 주력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드라마 속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정해인이라 연기자로 넓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차승원표 ‘휴먼코믹’ 기대하시라

‘힘을 내요 미스터리’ 7월 촬영 시작 2년 만의 스크린 주연작 기대 만발



차승원

몸 풀기는 이제 끝났다. 새롭게 앞만 보고 달려갈 참이다.

배우 차승원이 스크린 위엄을 마치고 다시 관객과 만남을 예고하고 나섰다. 차승원은 7월 신작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 촬영을 시작한다. 최근 흥행작 ‘독전’에 ‘특별출연’으로 이름을 올려 호평을 받은 뒤 온전한 스크린 주연으로 다시 관객을 만나게 된다.

‘힘을 내요 미스터리’는 2016년 697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력기’의 이계벽 감독 신작. 차승원은 지능이 낮아진 아빠로 아픈 딸과 이야기를 펼쳐며 진한 부성애를 드러내는 휴먼 코미디 장르의 주연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차승원은 앞서 2016년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1년여의 긴 작업과 그 결과물을 내보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

진함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올해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화유기’로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나섰지만 드라마 외적인 아픔과 논란으로 그 활약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정한 장막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독전’으로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주연급 배우의 이름값보다는 적은 비중이었지만 강렬한 개성으로 관객의 시선을 모으며 ‘특별출연’의 활약보다 더한 힘을 발휘했다.

따라서 ‘힘을 내요 미스터리’는 차승원에게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사이 겪은 부침의 상황을 정리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특장 중 하나인 휴먼 코믹의 분위기로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내던진다. 전혜민, 박해준 등과 함께하는 그 승부수의 결실이 내년 드러날 전망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